

해외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여행팀명 : 그루터기 - 누구나 찾아와서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쉼터)

I 개 요

- ☐ 여행기간 : 2013. 8. 26.(월) ~ 8. 30.(금)
- ☐ 국 가 : 태 국
- ☐ 견 학 지 : 【칸차나부리】 제스전쟁박물관, 콰이강의 다리
【아유타야】 방파인(왕의 여름별장), 왓프라시산펫, 왓아이차이몽콘, 왓프라마하탄(고대유적지)
【방 콕】 에메랄드사원, 왕궁, 수상가옥
- ☐ 팀 인 원 : 4명(최화덕, 김경하, 최종대, 이영섭)
- ☐ 주요내용
 - 태국의 역사유적을 견학하여 글로벌 안목을 키우고 시설관리 노하우 습득
 - 관광국 태국의 관광지의 시설 유지관리현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공단 관리시설 접목
- ☐ 일 정
 - 제 1 일차 :출국(부산 ⇒ 김해공항 ⇒ 방콕 수완나폼공항)
 - 제 2 일차 :[칸차나부리] 제스전쟁박물관, 콰이강의 다리
 - 제 3 일차 :[아유타야] 방파인(왕의 여름별장), 왓프라시산펫, 왓아이차이몽콘,
왓프라마하탄(고대유적지)
 - 제 4 일차 :[방콕] 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 왕궁, 수상가옥
 - 제 5 일차 :귀국(방콕 수완나폼공항 ⇒ 김해공항 ⇒ 부산 도착)



II 국가개요

- ☐ 국 명 : 태국(Kingdom of Thailand)
- ☐ 정부형태 :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 ☐ 면 적 : 513,120km²(한반도의 2.3배)
- ☐ 인 구 : 약6,745만명
- ☐ 민 족 : 타이족(85%), 화교(12%) 등
- ☐ 종 교 : 불교 95%, 이슬람교 5%
- ☐ 언 어 : 타이어
- ☐ 1인당 GNP : 5,382 \$ (2012년 IMF 기준)
- ☐ 화폐단위 : 바트(Baht)화
- ☐ 기 후 : 열대몬순기후
- ☐ 주요산업 : 관광업
- ☐ 병역제도 : 의무병역제이며 복무기간은 2년(제비뽑기 추첨식)
빨간색 군복무, 검정색 면제, 징병대상 21~3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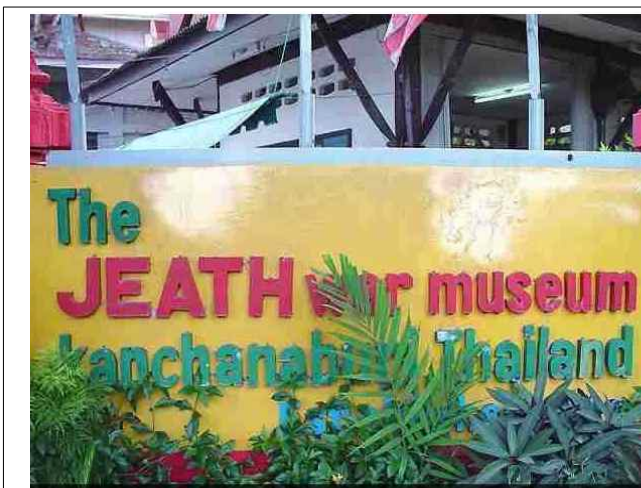
태국 국가 위치	태국 국가 지도

III 견학시설

1 칸차나부리

□ 견학장소명 : 제스전쟁박물관

- 위치 : 칸차나부리 시내 남서쪽에 있는 콰이 강변에 위치
- 특징
 - ▷ 전쟁의 상처를 생각나게 해주는 귀중한 역사박물관
 - ▷ JEATH는 Japan(일본), England(영국), Australia(오스트레일리아), Thailand(태국), Holland(네덜란드)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전쟁 포로수용소를 복원
 - ▷ ㄷ자형의 건물 안에는 전쟁 당시의 사진, 연합군의 포로가 그린 스케치와 수채화, 일본군의 포로 고문 장면이 전시되어 있어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주고 있음



□ 전학장소명 : 콰이강의 다리

○ 위 치 : 칸차나부리 콰이강

○ 특 징

- ▷ 1950년대 세계적으로 흥행한 미국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
- ▷ 처음에는 목조 다리였으나 연합군의 공습으로 몇 차례 파괴된 후 현재의 철교가 놓임
- ▷ 일본군의 군용 철도로 연합군의 전쟁 포로들에 의해 건설되어 현재는 전쟁 후 새롭게 복구
- ▷ 다리 앞에 있는 증기기관차와 폭탄이 당시의 참혹함을 나타냄



2 아유타야

□ 견학장소명 : 방파인(왕의 별궁)

○ 위 치 : 아유타야 남쪽

○ 특 징

▷ 방파인은 아유타야의 프라사드 톤 왕이 나라이 왕이 태어난 해인 1632년에 차오프라야 강 속의 섬 한가운데에 있는 인공호에 세운 별궁으로 아유타야가 멸망하면서 일시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방콕 왕조의 라마 4,5세 때에 다시 복구되어 현재 방콕 왕조의 별궁으로 사용되고 있다.

르네상스 양식 등 라마 5세가 세운 중요한 여러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우아함을 자랑하고 있음

▷ 1876년 라마 5세에 의해 지어진 프라티낭 아이사완티파야트 궁전은 별궁 내에 있는 인공호수 한가운데에 위치한 십자형의 전통적인 태국 건축양식의 건물로 녹색과 오렌지색의 지붕이 금빛 기둥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방파인 궁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인공호수의 수면이 잔잔할 때 수면에 비치는 궁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 중국 스타일의 건축양식으로 1889년 라마 5세에 의해 지어진 프라티낭 웨하트 참룬 궁전은 외부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2층 건물로 궁전 내부의 바닥 타일에는 매우 아름다운 새와 나무,동물들이 그려져 있으며,도기와 조각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중국식의 왕좌가 높이 자리 잡고 있으며 명치시대의 일본 항아리등이 전시되어 있다



□ 견학장소명 : 왓프라시산펫, 왓아이차이 몽콘, 왓프라마하탓(고대유적지)

○ 위 치 : 아유타야 남동부

○ 특 징

- ▶ 아유타야 왕실 사원인 왓 프라시산펫은 방콕의 왓 프라케오와 맞먹는 왕궁 부속 사원으로 아유타야 유적 중에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꼽히고 있다. 1500년에 라마티보디 2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171kg이나 되는 황금을 입힌 높이 16m의 입불상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버어마군의 침입으로 지금은 사원과 불상 모두 파괴되고 흔적만이 남아 있다. 현재는 15세기에 세워진 세 왕의 유골을 모셔 놓은 실론 양식의 체디(불탑) 3기만이 아유타야의 상징처럼 남아 있다.
- ▶ 왓 아이 차야 몽콘은 1357년 우통왕이 실론(現 스리랑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승려들을 위해 건설한 사원으로 경내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높이 72m의 체디(불탑)가 매우 유명하다.
- ▶ 아유타야에서 가장 큰 유적으로 꼽히는 왓 프라 마하탓은 버어마군 침입 당시 철저히 파괴되어 황폐해진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버어마군의 파괴 이후 남아 있는 유적은 얼굴만 남은 불상, 상반신만 남은 불상, 나무뿌리에 박혀 있으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뿐인 불상, 이끼 낀 불탑 등이 황폐해진 모습으로 남아 있다.



3 방콕

□ 견학장소명 : 에메랄드 사원

- 위 치 : 방콕 짜오프라야 강
- 특 징

▷ 에메랄드 사원(왓 프라케오 - Wat Phra Kaeo)은 왕궁 내의 왕실 전용사원으로 태국의 사원 중 최고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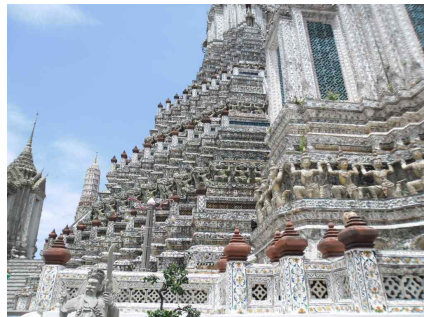
높이 치솟은 궁전과 누각, 사원들은 모두 금박 잎새, 자기, 유리로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다

▷ 다양한 양식의 세계의 탑들은 실론(스리랑카)양식, 태국양식, 크메르양식으로 각각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불당 안에는 태국 국보 1호의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데, 이 불상은 원래 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은은한 옥빛을 품고 있다.

불상의 화려한 황금옷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왕이 직접 갈아 입히는 행사를 하고 있다.

▷ 사원 내의 모든 벽에는 석가의 생애와 붉은 우주관을 표현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복도 입구에는 불교의 수호신 나크가 서있으며 내부벽에는 인도의 유명한 서사시 '라마야나'의 태국어 판인 '라마키엔'의 세계가 그려져 있어 오랜 세월 불교와 힌두교가 공존하면서 서로의 종교세계에 영향을 끼치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견학장소명 : 왕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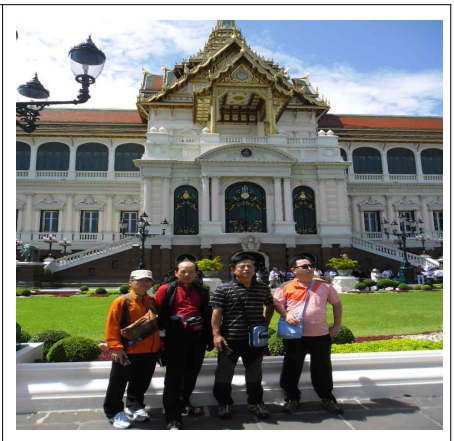
○ 위 치 : 방콕 짜오프라야강

○ 특 징

▷ 1783년 현왕조인 라마1세가 세운 건축물로 태국인들의 심장부와의
같은 곳이다

▷ 현재는 국왕이 거주하지 않으며 국가의 공식행사시에만 사용. 왓

▷ 프라깨우를 포함해 왕궁 전체를 감싼 네 벽의 길이는 도합 1.9km
로 상당한 규모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만 일반에게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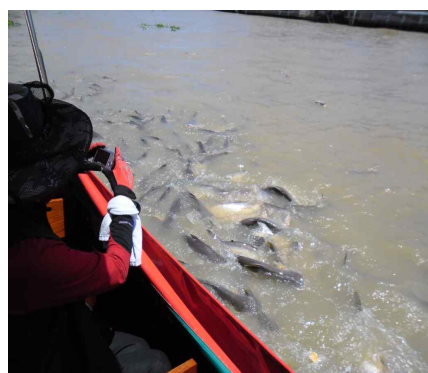


□ 견학장소명 : 수상가옥

○ 위 치 : 방콕 짜오프라야강

○ 특 징

▷ 황토빛 짜오프라야강 곳곳에 나무로 지어진 주택들과 배를 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방콕의 명소 중 하나이다



IV 결 과

□ 느낀 점(전학소감)

- 우리팀원 모두 태국은 처음 가 보았다. 태국 문화탐방을 하면서 느낀 것은 평평하게 뻗은 넓은 태국 땅이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 지형에서 생활하다가 태국의 평평한 대지를 보면서 신기하게 느껴졌다. 방콕 등 문화탐방지를 자동차로 돌면서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고급 외제차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외제차 비율이 많고 현대나 기아차 등 우리나라 차는 볼 수 없어 매우 놀라웠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GNP 1/4인 태국에 고급 외제차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때 좀 의아하고 신기했다. 특히 일산 자동차가 대부분이었는데 일본에서 무상으로 도로를 건설해주고 많은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고 자국의 생산품을 팔고 있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씁쓸했다
- 또 신기했던 것은 전봇대가 사각이었다. 우리나라는 원형이고 안전면에서도 원형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정말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 태국에는 뱀이 많아 원형으로 된 나무나 그런 곳에는 뱀이 기어올라 다니기 때문에 기둥을 사각으로 만들어 주면 뱀이 기어 올라 가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팀원들 모두 한바탕 웃었지만 한편으론 그 발상에 놀라웠다
- 방콕 도심을 돌아 다니면서 지하주차장을 보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형쇼핑몰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빌딩 옆에도 지하주차장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땅이 넓어서 지상 주차장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방콕은 지반이 불안정하고 홍수시 자동차가 잠기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 태국은 왕이 신성시 되고 존경 받는 나라, 어디서나 왕의 사진을 볼수 있는 나라, 개방 된 밤문화, 낙천적인 국민성, 군인과 경찰이 힘있는 나라, 맛사지 샵이 많은 나라, 제비뽑기해서 군에 가는 나라, 모계사회, 항상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 공원,장사 등 조경,운영,시설분야

【시민공원 · 공원관리 · 장사 · 도시고속도로 조경분야】

- 아유타야 방파인(왕의 별궁)에서 본 코끼리모형의 조경은 우리팀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공원, 시민공원, 도시고속도로 조경지, 영락, 추모공원 화단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동물모형, 구조물 등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참배객과 일반시민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친근한 공원 이미지 조성과 볼거리를 주는 도로, 쉼터를 조성하였으면 함
- 그리고 어린이 장애자들의 위하여 골프장 전동카트 같은차(4인승)을 대여,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공단이 인수계획인 시민공원과 같은 평지에 도입하여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들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에메랄드사원, 왕궁 등을 돌아보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화시설들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였다. 현장 방문을 갔을때도 독창적으로 고안된 디자인을 계속해서 수놓고 있었다. 우리공단 공원·유원지에도 원두막과 돌담길, 가로수길, 건물마다 독창적으로 고안된 디자인을 세겨넣고 조각공원, 야외 공연장 등 복합적인 공원시설을 시민공원에 접목시켰을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